

하반기 최대어 '흑석9·11구역', 수주 전초전 돌입

흑석9, 롯데건설 계약해지 통보
삼성-현대-대림-GS 등 관심

흑석11, 내일 인가신청 임시총회
삼성 등 다수 대형건설사 군침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9구역, 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대형 건설사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05년 흑석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은 '신흥강남'으로 불리며 한강변 입지로 인기가 급부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있지만 하반기 주목할 만한 수주전이 없어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지난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은 최근 조합이 롯데건설에 계약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전경. /연합뉴스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90일대 9만4000㎡를 재개발해 1538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롯데건설이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

설계를 내세워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최고 25층' 층고 제한에 걸리며 설계변경안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당시 공사비는 4400억원 규모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했

을 때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흑석9구역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9구역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장 선거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9월 예정된 시공사 선정은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다. 해임된 기존 조합은 조합장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흑석11구역은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9월2일로 총회 날짜를 연기했다. 시공사 선정은 총회 이후가 진행될 예정이다.

흑석11구역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에 공급된다. 지난 6월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으로, 25개동, 1509가

구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대지면적 6만9743㎡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착공, 2025년 입주목표다.

현재 이곳은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다수 대형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4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첫 번째 '도시·건축혁신 정책' 사업지인 데다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한편 흑석뉴타운은 흑석동 일대 89만여㎡ 총 11개 구역을 1만2000여가구 브랜딩 아파트타운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5개 구역이 입주를 마쳤고, 지난 5월 3구역(흑석리버파크자이)이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1·2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블랙핑크 신곡 인기... 내년 굿즈 매출 100억 전망

株라쿨라의 종목

음원·음반 유통 | YG PLUS |

블랙핑크·트레저 앨범판매 주목
현재 주가 대비 45% 상승 여력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충현 연구원은 지난 31일 "블랙핑크의 두번째 신곡이 공개 41시간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면서 YG PLUS의 목표주가를 8000원으로 제시했다. 현재주가 대비 45%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YG PLUS는 YG그룹 내 음원·음반 유통을 전담하고, 굿즈 제작·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음악부문 매출액(241억원) 중 25%인 61억원이 음

원·음반 유통에서 나왔다. 나머지 180억원은 네이버 음악 플랫폼인 '바이브' 운영수수료다.

YG PLUS는 음원·음반 부문을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까지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현재 해외시장 음원·음반 판매는 YG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고 있어 해외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YG엔터테인먼트와 해외 업체들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후 해외 음원·음반 유통, 판매도 YG PLUS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블랙핑크와 트레저의 음반 판매량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YG PLUS는 YG 아티스트들의 스트리밍 음원 소비가 많을수록 음반 판매량이

높을 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 연구원은 "지난 6월 26일 컴백한 블랙핑크와 7월 데뷔한 트레저의 3분기 음반 판매 추정치가 블랙핑크는 50만장, 트레저는 25만장이다"면서 "아직 3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블랙핑크의 첫번째, 두번째 앨범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 10월 2일 출시하는 정규앨범은 올해 음원과 음반판매 실적에 추가적인 상승동력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또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명)'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 9~10월 '악동뮤지션'과 '송민호' 등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도 이어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빅뱅'이 컴백할 전망이다. 음원·

음반 부문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

굿즈 제조와 판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2018년 주요 아티스트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을 당시 굿즈 판매 매출액이 1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블랙핑크의 글로벌 팬덤과 최근 트레저의 국내 인기가 고조되고 있어 내년에는 굿즈 부문에서 100억원 이상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YG PLUS의 2020년 영업이익은 66억원으로 전년보다 446.5% 증가할 것으로 봤다. 매출 역시 11.7% 늘어난 1391억원으로 전망했다. 적정주가는 2021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200원에 주가수익비율(PER) 40배를 적용했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대신증권

타사 대체입고 하면 30만원 축하금 지급

대신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의 상장 주식이나 상장주식펀드(ETF)를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인 크레온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시즌3'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31일 밝혔다.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시즌3'은 다른 증권사에 있는 국내의 상장 주식이나 ETF를 크레온 계좌에 500만원 이상 입고 한 뒤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출고 수수료와 최대 15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축하금을 2배 적용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계좌개설 고객과 2020년 1월 이후 크레온에서 국내의 주식 거래가 없는 휴면고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입고 잔고를 10월 30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크레온 MTS, HTS 또는 크레온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주식 시장이 활기를 찾으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신증권에서 혜택도 받고 성공적인 투자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KB증권, 언택트 종목만 모은 ETN 상장

'KB FnGuide 언택트 ETN' 상장
삼성·LG화학·삼성SDI 등 구성

KB증권은 9월 1일 언택트 관련 국내주식 종목으로 구성된 'KB 애프엔 가이드(FnGuide) 언택트상장지수증권(ETN)'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KB FnGuide 언택트 ETN'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60일 평균 거래대금 20억원 이상 등 기본 요건을 만족한 국내 종목 중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언택트 관련도가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FnGuide 언택트 지수'를 추종한다.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SDI ▲엔씨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으로 이뤄졌다. 구성종목 정기변경은 6개월마다 과

거 1년치 증권사 리포트를 대상으로 언택트 키워드 기반 머신러닝으로 선별해 시행한다. 활발한 리서치가 이뤄진 종목 위주로 변경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ETN을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을 증권사가 지급키로 약속한 상품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기초지수가 국내주식형인 ETN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내지않아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상장 이후 2030년 8월 29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상장폐지된다. 발행수량은 총 100만주이고 총 보수는 연 0.8%로 매일 최종지표가치(IV)에 일할 반영된다.



김호영 KB증권 에쿼티(Equity)본부장은 31일 "KB FnGuide 언택트 ETN의 기초지수는 올 상반기 동안 KOSPI200의 18배 이상 상승해 시장대비 확실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언택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위해 시기에 맞는 편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기 기자

에탁원

38社 3억2782만주 이달 의무보유 해제

한국에탁결제원이 오는 9월 중 총 38개사 3억278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가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의무보유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1억11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2억2771만주(36개사)다.

전월(3억816만주) 대비 6.4%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억5900만주) 대비 106.2% 증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